

I 신도시 건설과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I New Town and the Establishment of Public Libraries

김 영 석(Young-Seok Kim)**

목 차

1. 머리말	4.2 I 신도시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시기
2. 연구 목적 및 방법	4.3 I 신도시 지역 공공도서관의 입지
2.1 연구 목적	4.4 I 신도시 지역 공공도서관의 규모
2.2 연구 방법	4.5 I 신도시 지역 공공도서관 운영 조직
3. I 신도시 건설	5. I 신도시 건설과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논의
4. I 신도시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6. 맷음말
4.1 I 신도시 지역 공공도서관 현황	

초 록

본 연구는 경기도 고양시에 속한 I 신도시를 대상으로 이 신도시 건설과정에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밝히고, 이 결과를 새로운 신도시 건설에 적용하여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건립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 신도시는 계획대로 4개 도서관을 모두 건립하였고, 이를 도서관의 입지는 매우 양호했다. 그러나 도서관의 건립은 상당히 지체되어 심지어 한 도서관은 신도시 계획 수립 후 18년 후에 건립되었다. 4개 도서관의 규모는 현재의 우리나라 평균 보다 매우 크다. 도서관 운영조직은 이상적인 형태라기 보기 어렵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 experience in establishing public libraries in I New Town, and then to propose how to build properly public libraries when new towns are constructed. In the case of I New Town, four public libraries were built in good locations but with considerable delay, and one of them was built 18 years after the new town plan was established. Those libraries are relatively bigger than the average public libraries in Korea, but their organizational structures are not ideal at all.

키워드: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건립, 신도시 계획, 신도시 건설

Public Library, Establishment of Public Libraries, New Town Plan, Construction of New Towns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32-H00004).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yskim7@mju.ac.kr)

논문접수일자: 2011년 7월 18일 최초심사일자: 2011년 7월 20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8월 14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3): 187-206, 2011. [http://dx.doi.org/10.4275/KSLIS.2011.45.3.187]

1. 머리말

21세기는 지식정보사회이며 동시에 문화·예술의 시대이다. 주정민 등(2005)은 “21세기는 오랜 세월 지속되어온 경제 제일주의 개발 모델에서 벗어나 경제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사회를 지향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지금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도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도시가 사람이 살기 편리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의미의 도시, 즉 문화도시의 건설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성장해버린 기존 도시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이 살아 있는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쉽지 않고,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왜냐하면 기존 도시는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형성되어 고착된 그 도시의 모습이 있고, 그 이미지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의 건물들을 철거하는 등 큰 변화를 주어야 하는 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신도시 건설은 하얀 종이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이 새로운 대규모 부지에 도로와 건물 등 모든 시설을 계획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여 이상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중앙 및 지방정부는 현대인의 삶에서 공공도서관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많은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라의 도시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도시 중심가 및 주택가에서 도서관 건립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는 도서관 건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공 도서관 인프라를 좀 더 수월하게 확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신도시는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필요성만 잘 인식하고 있다면 신도시 건설 계획에 도서관 건립 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결론적으로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기존도시보다 훨씬 수월하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서울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1974년 반포단지를 시작으로 1975년 잠실단지, 1983년 목동 그리고 1986년 상계동 단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대규모 공동주거단지, 일명 아파트형 주거 단지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서울 인근에 새로운 대규모 신도시(new town)를 건설하였다. 즉, 1989년에 분당, 일산, 평촌, 산본 그리고 중동 등 경기도의 다섯 곳에서 대규모 1기 신도시 건설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70~80년대 건설된 서울 시내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그리고 80년 말에 시작된 경기도 일원의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화시설인 공공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건립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기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의 문제점을 I 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 될 여러 형태의 신도시 건립 과정에서 효율적인 도서관 건립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족한 도서관을 확충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및 방법

2.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I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도서관 건립의 문제점과 그 개선점을 찾는데 있다. 즉, I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몇 개의 도서관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디에 건립되도록 계획되었고,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었는지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서관 건립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향후에 건설되는 신도시에서 도서관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건립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족한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매우 좋은 기회이다. 이에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도서관 건립의 문제점과 그 개선점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부족한 도서관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2.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나가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데이터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현장 방문·조사이다. I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그리고 건설 완료 후에 동 지역에 건립된 공공도서관과 동 지역의 주요 공공시설의 입지를 조사·분석하기 위해 도서관과 주요 시설을 방문·조사하였다. 두 번째는 문헌조사방법이다. I 신도시 건설 사업은 1989년에 시작되어 1995년에 완료되었다. 따라서 15~20년 전에 시행된 동 사업 및 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세 번째 방법은 인터뷰 방법이다. 신도시 건설 및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문헌조사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I 신도시의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를 인터뷰 하였다.

3. I 신도시 건설

I 신도시 건설 과정은 <표 1>과 같이, 1989년 4월에 I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고, 6월에는 I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고시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택지개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1990년 3월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1차) 및 개발계획 최종 승인이 있었다. 이에 따라서 I 신도시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 (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는 1990년 3월 31일을 I 신도시의 공식 사업 시작일로 간주하고 있다.

〈표 1〉 I 신도시 연도별 건설 과정

1989.	4.27: I 신도시와 분당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6.20: I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12.12: 분당, I 신도시 택지개발계획(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90.	3.3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1차) 및 개발계획 승인
	5.22: 도시설계 용역착수
	6.30: 실시계획(1단계)승인
	7.12: 1단계 택지조성공사 착공
	12.28: 실시계획(2단계)승인
1991.	6.29: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개발계획 1차 변경, 1.2단계 실시계획 변경 및 3.4단계 실시계획 승인
1992.	3.28: 공동주택단지(아파트+복합용도) 도시설계지침 승인
	7.13: 개발계획 2차 변경 승인
	8.24: 상업·업무, 단독, 연립,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용지 도시설계지침 승인
	8.31: 주민입주개시
	12.28: 개발계획 3차 변경, 1·2단계 실시계획(2차)변경 및 3·4단계 실시계획(1차)변경승인
1993.	3.3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승인
	8. 2: 개발계획 4차 변경, 1·2단계 실시계획(3차)변경 및 3·4단계 실시계획(2차)변경승인
	12.28: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개발계획 5차 변경 및 1단계 실시계획(2차)변경승인
	12.31: 택지개발사업 1단계 준공
1994.	12.16: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및 개발변경 6차 변경승인
1995.	3.27: 2단계 실시계획(4차) 및 3·4단계 실시계획(3차)변경승인
	5.31: 택지개발사업 2단계 준공
	12.26: 개발계획 7차 변경 및 3·4단계 실시계획(4차)변경승인
	12.31: 택지개발계획사업 3·4단계 준공

I 신도시의 건설 규모는 1989년 4월 I 신도시 건설 계획과 함께 발표된 B신도시에 비해 그 규모가 20% 정도 작다. I 신도시와 B신도시의 개발계획 내용은 〈표 2〉와 같다.

1990년 5월에는 신도시의 공공 및 민간부문 지침작성을 위한 도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었고, 6월과 12월에는 각각 1단계와 2단계 실시계획

이 승인되었다. 그리고 7월에는 1단계 택지조성공사가 착수되어 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는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도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신도시 건설의 밑그림이 그려질 때 신도시의 중요한 문화시설로서 도서관 건립 계획이 포함

〈표 2〉 I 및 B신도시 개발계획 개요

구분	총면적(천m ²) / 천평	수용인구(명)	주택호수	서울에서의 거리(km)	개발기간	사업목적
I 신도시	15,736 / 4,760	276,000	69,000	북서쪽 20	90.3.31~95.12.31	자족도시
B신도시	19,691 / 5,956	390,500	97,580	남동쪽 25	89.8.31~95.12.31	자족도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I 신도시의 경우 4단계 실시계획이 수립되는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도서관 건립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991년 6월에는 개발계획 1차 변경, 1·2단계 실시계획 변경 및 3·4단계 실시계획이 승인되었다. 1992년 3월에는 공동주택단지 도시설계지침이 승인되었고, 8월에는 균형생활시설과 공공시설용지 도시설계지침이 승인되었다. 그리고 같은 달 8월에는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고 3년 4개월, 그리고 택지조성공사가 시작된 지 2년 1개월 만에 최초의 주민입주가 이루어져 바야흐로 일산 신도시 생활이 시작되었다.

1992년 9월에는 자유로 건설공사가 준공되고, 1993년 12월에는 1단계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다. 뒤이어 1995년 5월에는 2단계 택지조성공사가, 그리고 1995년 12월에는 3·4단계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어 신도시 건설 사업이 대략 마무리되었다. 1996년 1월에는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한 일산선(대화-구파발)이 개통되었고, 그해 5월에 I 신도시의 상징인 31만평 규모의 호수공원이 개장되었으며, 1996년 10월에는 아파트 주민의 입주가 완료되어 6만 9천 세대, 인구 28만여명이 사는 오늘의 I 신도시에 이르게 된다.

4. I 신도시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2011년 7월 현재 I 신도시가 속한 고양시에

는 <표 4>와 같이 총 12개¹⁾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핵심 과제는 I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몇 개의 도서관이, 어느 시기에, 어디에, 어느 규모로 건립되었는지를 조사·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12개 도서관 중에서 I 신도시 건설과 관련이 없는 도서관들을 먼저 찾아내고, 나머지 도서관을 대상으로 이들 도서관의 건립시기, 입지 그리고 규모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4.1 I 신도시 지역 공공도서관 현황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I 신도시가 속한 고양시에는 현재 12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들 12개 도서관 중에서 I 신도시 지역 밖에 건립된 도서관은 5개관이다. 따라서 I 신도시 건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서관은 7개관이다. 다시 이 7개 도서관 중에서 I 신도시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서관이 몇 개관인지 조사하였다. 즉, I 신도시 건설 사업 주체인 LH공사가 I 신도시 건설 계획을 수립할 때 몇 개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LH공사는 신도시 건설 계획 수립 과정에서 I 신도시의 도시규모 및 생활권을 고려하여 1개의 중앙도서관과 3개의 균형도서관 등 총 4개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다.²⁾ 그 근거자료는 <표 3>과 같다.

1) 12개 작은도서관 제외.

2) 한국토지공사. 1997.『I 신도시개발사』. 서울: 한국토지공사. 233.

〈표 3〉 I 신도시 생활편익시설 건립 계획³⁾

구분	시설 수(개소)	면적(m ²)
도매시장	1	135,330
의료시설	3	8,626
사회복지시설	2	-
종교시설	32	31,771
문화시설	1	47,388
도서관	4	-

그러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5년 12월 26일에 승인된 ‘개발계획 7차 변경 및 3·4단계 실시계획(4차)변경’에 따른 ‘I 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상에는 3개의 도서관 부지만 소개되어 있고 나머지 한 개소의 부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LH공사가 건립을 계획한 공공도서관은 확실히 총 4개가 맞는 것 같다.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자료가 있다. I 신도시가 속한 고양시는 ‘개발계획 7차 변경 및 3·4 단계 실시계획(4차)변경’과정에서 ‘I 신도시 공원과 접한 도서관부지 3개소에 대하여 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축 후 무상양여’를 LH공사에 요청한다. 그러나 LH공사는 고양시의 이

러한 요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는다. 즉, 공공도서관은 ‘무상공급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고양시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 다만 ‘별도의 균린공원 내 계획된 도서관 1개소는 건축 후 고양시에 기증’⁴⁾ 한다. 바로 LH공사가 고양시에 건축 후 기증하기로 한 도서관⁵⁾(현재의 마두도서관)의 위치는 ‘I 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LH공사는 ‘I 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에 표시한 3개 도서관과, 이 계획도에는 표시하지 않고 별도로 건립하여 기부채납한 도서관 1개관 등 총 4개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들 4개 도서관은 신도시 건설 계획에 준하여 ‘I 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에 표시된 위치에 건립되었다.

I 신도시에는 신도시 건설 계획에 준해서 건립된 4개 도서관 외에 최근에 3개의 도서관이 추가로 건립되었다. 따라서 I 신도시에는 〈표 4〉와 같이 건설 계획에 준하여 건립된 4개 도서관과 건설 계획에 없었던 3개 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7개의 도서관이 건립되었다.

〈표 4〉 고양시 구별 공공도서관 수

구 분	I동구	I서구	덕양구	고양시 전체
신도시 건립 계획에 의한 도서관	나. 마. 바	카	.	4
신도시 건립 계획과 무관한 도서관	파	사. 타	*가. 다. 라. 아. 차	8
총 도서관 수(관)/(#)	4/(1#)	3/(2)	5/(5)	12/(8)
인구 수(명)	269,000	286,000	394,000	949,000
1관당 인구 수(명)	67,250	95,330	78,800	79,080

* 가: 행신도서관, 나: 마두도서관, 다: 원당도서관, 라: 화정도서관, 마: 백석도서관, 바: 아람누리도서관,
사: 주엽어린이도서관, 아: 행신어린이도서관, 차: 화정어린이도서관, 카: 대화도서관, 타: 한뫼도서관, 파: 풍동도서관
(# 공립작은도서관 수)

3) 상계서, 233.

4) 전계서, 139.

5) 한국토지공사. 2000. 『주민과 함께하는 토공의 공공건축물』. 서울: 한국토지공사. 43-44.

I 신도시의 건설 계획은 위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기도의 B신도시 건설 계획과 함께 발표되었다. 다만, I 신도시의 건설은 B신도시보다 1년 늦게 시작되었다. 따라서 I와 B신도시는 같은 시기에 건립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건립 계획에 있어서는 I 신도시가 B신도시보다 양호하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LH공사는 I와 B신도시를 건설할 때 각각 4개, 5개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I와 B신도시의 계획 인구는 각각 276,000명, 390,500명이다. 따라서 계획대로 도서관이 건립되면 I 신도시에는 인구 69,000명당 하나의 도서관이 있게 되고, B신도시에는 인구 78,000명당 하나의 도서관이 있게 되어 I 신도시가 도서관 인프라에 있어서 더 양호하다. 또한, I 신도시의 경우는 원래 계획했던 4개 도서관이 계획대로 모두 건립된 반면, B신도시의 경우는 원래 계획했던 도서관은 5개인데 이중 단 2개만 건립되었다.⁶⁾ 결론적으로 I 신도시는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다만, 계획된 도서관의 건립이 지체된 것이 문제점이다.

한편, 2011년 현재의 공공도서관 인프라에 있어서도 I 신도시는 B신도시보다 양호하다. I 신도시는 현재 7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

인구 79,300명당 하나의 도서관이 있는 반면, B신도시는 4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 인구 116,000명당 하나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4.2 I 신도시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시기

어느 한 지역 혹은 국가에서의 공공도서관 건립 시기는 그 지역 행정공무원, 도시 계획 수립 학자 그리고 시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의 인식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느 한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이 다른 주요 공공시설들과 같은 시기에 건립되었다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도서관을 다른 공공시설들과 동등하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 신도시 건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위의 <표 1>에 소개한 'I 신도시 건설 과정'에 근거하여 이들 도서관의 건립 시기를 조사하였다.

I 신도시는 위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9년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고 3년 4개월 만인 1992년 8월에 최초의 주민입주가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주요 공공편익시설, 예를 들면, 각급 학교, 공용 청사(동사무소, 경찰서, 소방서 등) 등은 주민입주 시기에 맞춰서 건립되

<표 5> I와 B신도시 건설과 공공도서관 현황

	도서관 건립 계획	신도시 계획 인구	도서관당 인구수	실제 건립된 도서관수	현재 도서관수	현재 인구수	도서관당 인구수
I 신도시	4	276,000	69,000	4	7	555,000	79,300
B신도시	5	390,500	78,000	2	4	464,000	116,000

6) 김영석. 2010. 경기도 B신도시 건설과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3): 249-267.

어야 한다. 만약 이 지역 공공도서관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에 의해 이들 공공편의 시설들과 똑같이 주요 공공 시설로 인식되었다면 이들 도서관은 신도시 주민들의 입주 시기에 맞춰서 건립·개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I 신도시의 도서관은 주민들의 입주 시기에 맞춰서 건립되지 않았다. I 신도시 건설 계획에 의해 건립된 4개 도서관과,

신도시 건설 계획과는 관련이 없으나 I 신도시 지역에 건립된 3개 도서관, 그리고 I 신도시 지역 밖에 건립된 5개 도서관 등 총 12개 도서관의 건립 시기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공공도서관 건립 시기를 살펴보면,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2년 8월에 첫 주민입주가 시작되고 2년이 지난 1994년에서야 하나의(아: 행신)도서관이 개관하였다. 그러나 이 첫 번째

〈표 6〉 고양시 공공도서관의 연도별 건립 현황

년/월	신도시 건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신도시 건설과 관련 없음				
	직접 관련			간접 관련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92/12								B				
94/05								O				
97/06	**B											
99/01	C											
/05	O											
00/12								RB				
01/08								C				
/10	B								B			
02/01								O				
/09		B										
03/06	C								C			
/08									O			
/09	O											
05/12			B	B	B				B	B		
06/12		C		C					C	C		
07/06		O		O					O	O		
/07						B						
/09					C							
/10		C										
08/03		O		O								
/07					C							
/10					O							

* 가: 마두도서관, 나: 백석도서관, 다: 아람누리도서관, 라: 대화도서관, 마: 주엽어린이도서관, 바: 한뫼도서관,

사: 풍동도서관, 아: 행신도서관, 자: 원당도서관, 차: 화정도서관, 카: 행신어린이도서관, 타: 화정어린이도서관

** B: 도서관 건축공사 착공, C: 도서관 건물 준공, O: 도서관 개관, RB: 건물 리모델링 공사 착공

도서관도 신도시 지역이 아닌 I 신도시가 속한 지자체 (고양시)의 다른 지역에 개관하였다. I 신도시 지역에 가장 먼저 건립된 (가: 마두) 도서관은 첫 입주가 시작되고 7년이 지난 1999년 5월이다. 따라서 I 신도시 주민들은 지역에 따라서 최고 7년⁷⁾ 동안 도서관 없는 생활을 하였다. 이 첫 번째 도서관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건립한 것이 아니고 LH공사가 건립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한 도서관이다.

애초에 계획된 4개 도서관 중에서 LH공사가 기증한 도서관을 제외한 3개의 도서관은 1996년 주민들의 입주가 완료되고 난 후에 하나 둘 건립되기 시작하였는데, (나) 백석도서관은 2003년, 중앙도서관인 (다) 아람누리도서관은 2007년, 그리고 (라) 대화도서관은 2008년에서야 건립되었다. 즉, 이들 세 개 도서관은 첫 입주가 시작되고 각각 11년, 15년 그리고 16년 후에 건립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들 도서관은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다른 주요 공공편익시설과 같은 건립의 우선순위가 주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서관 건립의 지체가 I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의 도서관 건립의 여러 문제점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4.3 I 신도시 지역 공공도서관의 입지

공공도서관의 입지는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도서관의 접근성의 좋고 나쁨은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서관을 건립할 때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

소이다. 신도시가 아닌 기성 도시에서는 도심이나 주택가에 도서관을 건립하고 싶어도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부지를 찾을 수 없어 자치체들은 대체로 도시 외곽 공원에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반면에 신도시는 새로운 대규모 부지에 도시 계획에 따라서 각종 공공 및 민간 시설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경우도 좋은 입지를 갖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 신도시에 건립된 도서관들은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I 신도시 건설 계획에 의해 건립된 4개(가, 나, 다, 라) 도서관의 입지는 대체로 양호하다. 다만, 백석 도서관은 신도시 외곽 공원에 자리 잡고 있어 최고의 입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머지 3개 도서관은 주택가 공원 내, 그리고 도시 중심의 공원 내의 대로변에 자리 잡고 있어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이 좋다. 특히, 고양시의 중앙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람누리도서관은 다른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신도시의 중앙 공원 내에 자리 잡고 있어 이 도서관의 입지 선정은 매우 만족스럽다고 하겠다. I 신도시의 경우처럼 중앙도서관이 도심의 중앙에 다른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자리 잡는 형태의 입지선정은 신도시 도서관만이 갖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신도시의 경우에는 새로운 계획에 따라서 공공기관을 의도적으로 좋은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도서관의 입지

7) I 신도시의 일부 주민들은 지역에 따라서 1992년 첫 입주가 시작된 해가 아닌 그 후에 입주하였다.

〈표 7〉 I 신도시 지역 공공도서관의 입지

도서관 명	건물 연면적(㎡)	도서관 입지
가: 마두도서관	3,757	주택가 공원 내(대로변)
나: 백석도서관	4,071	단독과 아파트 단지 근처 공원 내(대로변)
다: 아람누리도서관	4,457	신도시 중앙공원 내(공공시설 단지와 인접, 교육청과 구청 옆, 복합문화공간의 한 부문)
라: 대화도서관	3,892	단독과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공원 내
마: 주엽어린이도서관	2,049	아파트 단지 내(대로변)
바: 한뫼도서관	4,153	상업시설과 아파트 등으로 둘러싸인 공원 내(대로변)
사: 풍동도서관	1,574	아파트로 둘러싸인 공원 내(대로변)
아: 행신도서관	2,359	아파트로 둘러싸인 공원 내(대로변)
자: 원당도서관	1,553	주택과 상업시설이 공존하는 지역의 중심에 위치
차: 화정도서관	4,580	아파트와 상업시설로 둘러싸인 공원 내(대로변)
카: 행신어린이도서관	1,688	아파트로 둘러싸인 공원 내(대로변)
타: 화정어린이도서관	1,689	아파트로 둘러싸인 공원 내(대로변), 초교 옆
총 연면적	35,822	가, 나, 다, 라 4개 도서관의 평균 연면적 4,044
평균 연면적	2,985	



〈그림 1〉 [신도시 건설 계획상의 도서관과 현 도서관의 위치]

* 월 두 개: 신도시 건설 계획에 있으면서 현재 그 자리에 건립된 도서관

** 월한개: 신도시 건설 계획에는 없으나 협재 운영 중인 도서관

선정에서 모든 신도시가 I 신도시처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 B신도시의 경우 중앙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해도 400여 미터를 걸

어 올라가야 하는 곳(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신도시에 건립된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지가 매우 열악하다. 아마도 이 도서관의 입지가 나쁜 이유는 이 도서관의 부지가 애초에 신도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나중에 부지를 확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I 신도시의 공공도서관 입지는 다른 신도시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이 중앙도서관을 포함하여 4개 도서관의 입지가 잘 선택 되었다고 하겠다. I 신도시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4개 도서관 외에 나머지 도서관들의 입지도 매우 양호하다. 대체로 이들 도서관들은 아파트와 단독형 주거단지로 둘러싸인 공원 내의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도서관 접근성이 좋고, 주민들의 눈에도 잘 띄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4.4 I 신도시 지역 공공도서관의 규모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도서관 부지 확보 및 건물 신축 비용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에 많은 지자체들은 도서관 수를 늘리면서 예산 부담을 덜기 위해 작은도서관을 많이 건립·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은 정규직 전문 사서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규모가 지나치게 작기⁸⁾ 때문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적정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한다면 예

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서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도서관을 많이 건립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 신도시의 도서관 규모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I 신도시 계획에 의해 건립된 4개 도서관의 평균 연면적은 $4,044\text{m}^2$ 로 고양시의 12개 도서관의 평균 연면적 $2,985\text{m}^2$ 보다 $1,000\text{m}^2$ 이상 크다. 이것을 통해 봤을 때 신도시 계획에 의해 건립된 도서관의 경우 신도시 건설 계획 수립과정에서 큰 도서관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도서관의 연면적도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 보인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평균 연면적은 $2,551\text{m}^2$ 이다. 따라서 I 신도시의 4개 도서관의 평균 연면적은 우리나라 도서관의 평균 크기보다 $1,500\text{m}^2$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4개 도서관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평균 크기 정도로 혹은 그것보다 더 작게 건립되었다면 도서관 건축비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또는 도서관의 규모를 줄였다면 4개 도서관 건축 비용으로 더 많은 수의 도서관을 건립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도서관 접근성 측면에서 큰 도서관을 하나 건립하기 보다는 중·소규모의 여러 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더 편리하다.⁹⁾ 결론적으로 소수의 큰 도서관이 아닌 중·소규모 도서관을 많이 건립하는 것이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겠다.¹⁰⁾

8) 고양시의 8개 작은도서관의 규모는 최소 52m^2 에서 최고 198m^2 이다.

9)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편람 편찬위원회. 2009. 『도서관편람』.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318.

10) 이용남. 2006.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분관 운영 체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현정보학회지』, 40(1): 353-372. 354.

4.5 I 신도시 지역 공공도서관 운영 조직

도서관의 운영 조직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도서관의 수가 많아지면 최소의 예산, 혹은 최소의 인원으로 많은 도서관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 조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I 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계획에 의해 건립된 4개 도서관만으로 운영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이 4개 도서관을 포함하여 I 신도시가 속한 고양시의 다른 8개 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12개 도서관이 하나의 운영 조직으로 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이들 12개 도서관의 운영 조직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고양시는 12개 공공도서관을 '도서관센터'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 본청 업무와 별도로 사업소 형태로 도서관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2>와 같이 행정직 4급인 도서관센터장¹¹⁾ 아래에 시설관리과와(도서관) 운영과 두 개의 과를 두고 있다. 시설 관리과에는 시설과 관리 두 개의 팀이 있는데, 시설관리과장(행정·사서5급)은 12개 도서관의 시설과 예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운영과는 한 개의 운영팀과 11개의 분관(Branch Library)(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과장(행정·사서5급)은 고양시의 중앙도서관(Central Library)인 아람누리도서관의 관장을 겸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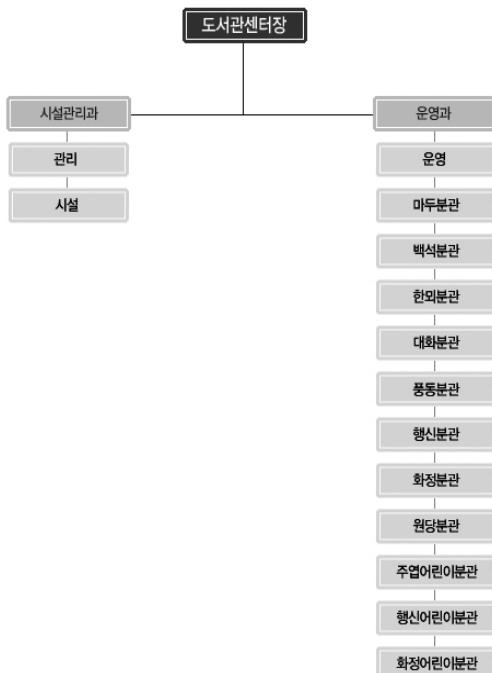
서 11개 분관과 8개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한편, <그림 2>의 조직도표를 보면 중앙도서관인 아람누리도서관을 확인할 수 없다. 이것은 아람누리도서관을 운영팀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마도 이것은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¹²⁾라는 도서관법의 저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림 2>의 조직도표상에 '운영'이 아닌 중앙도서관 혹은 아람누리도서관으로 표시한다면 그 팀의 장은 도서관장이 되어 사서직이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5급 행정직 운영과장이 아람누리도서관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봤을 때 I 신도시가 속한 고양시의 도서관 운영조직은 시설관리와 도서관 운영으로 구분되어 업무 분담이 명확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중앙도서관의 관장을 겸하고 있는 운영과장이 사서직이 아닌 행정직이라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 문제점은 시간이 지나면 곧 해결 되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직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고양시 도서관에 근무하는 6급 사서들¹³⁾이 시간이 지나면 5급으로 승진하여 운영과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 도서관 현장에서는 도서관센터가 고양시 조직도 상에서 여러 사업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센터장과 함께 소장이라고도 호칭하고 있다.

12) 도서관법(일부개정 2009.3.25, 법률 제9528호) 제30조 ①항.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2009.『도서관법령집』.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36.

13) 2009년 말 기준으로 고양시 공공도서관에는 네 명의 6급사서가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2010.『2010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420.



〈그림 2〉 I 신도시가 속한 경기도 고양시의
공공도서관 운영 조직도

5. I 신도시 건설과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논의

위의 3장에서 I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몇 개의 도서관이, 언제, 어디에 그리고 어느 규모로 건립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이 장에서는 I 신도시 건설과정에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의 문제점을 내용별로 나누어 밝히고자 한다.

첫째, 건립 된 도서관 수 부족. LH공사는 I

신도시 건설 계획을 수립할 때 총 4개의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하였다. 이 수는 I 신도시 계획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인구 69,000명당 하나에 해당된다. 이 수치는 I 신도시 건설과 같은 해에 발표된 경기도 B신도시의 인구 78,000명당 하나의 도서관 보다 양호한 것이다. 특히, I와 B신도시 건설이 발표된 1989년의 우리나라 현황(인구 약 170,000명당 하나¹⁴⁾)과 비교하면 I 신도시의 도서관 건립 계획은 매우 획기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상황(인구 66,556명당 하나¹⁵⁾)과 비교하면 I 신도시의 경우는 인구 79,300명당 하나¹⁶⁾로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었다. 더욱이 I 신도시 지역에 있는 7개 도서관 중 하나는 어린이도서관이다. 따라서 청소년과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6개관으로 인구 92,500명당 하나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 따라서 I 신도시 지역에는 더 많은 도서관이 건립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인구 5만 명당 하나 수준으로 도서관 인프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따라서 I 신도시 지역의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11년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2013년까지 총 11개의 도서관이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이 지역에는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하여 7개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4개관이 건립되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의 도서관¹⁷⁾ 건물이 준공되어 개관이 예정되어 있다.

14) 1990년 인구 수 43,410,898명 ÷ 도서관 수 253개관 = 171,585명

15) 2010년 인구 수 50,516,004명 ÷ 도서관 수 759개관 = 171,585명

16) 2010년 인구 수 555,000명 ÷ 도서관 수 7개관 = 66,556명

17) 원래의 I 신도시 지역 인근에 새롭게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고, 이곳에 식사지구 도서관 건물이 준공되어 개관을 기다리고 있다.

둘째, 도서관 건립의 지체. I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서 4개의 도서관이 모두 건립된 것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I 신도시 주민들의 첫 입주가 92년 8월에 시작되었고, 1995년 12월에 신도시 건설이 공식적으로 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도서관(LH공사가 건립 후 기부채납)은 첫 입주 후 7년 뒤에 그리고 나머지 도서관들도 11년에서 16년 후에 건립되어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에서는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른 주요 공공시설들과 동시에 건립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또한 I 신도시의 경우 중앙도서관이 분관보다 늦게 건립·개관하였다. 즉, I 신도시가 속한 고양시의 본관¹⁸⁾인 아람누리도서관은 다른 2개의 분관보다 늦은 2007년도에 개관하였다. 일반적으로 국내외 지자체의 경우 그 지역의 중앙도서관이 먼저 건립되고, 중앙도서관장의 기획에 의해 분관이 건립된다.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 이런 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도서관이 건립되었다. 이것은 I 신도시의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전문가의 자문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도서관 입지. I 신도시 건설 계획에 의해 건립된 4개 도서관은 모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들 도서관은 모두 단독 혹은 아파트형 주거 단지로 둘러싸인 공원 내의 대로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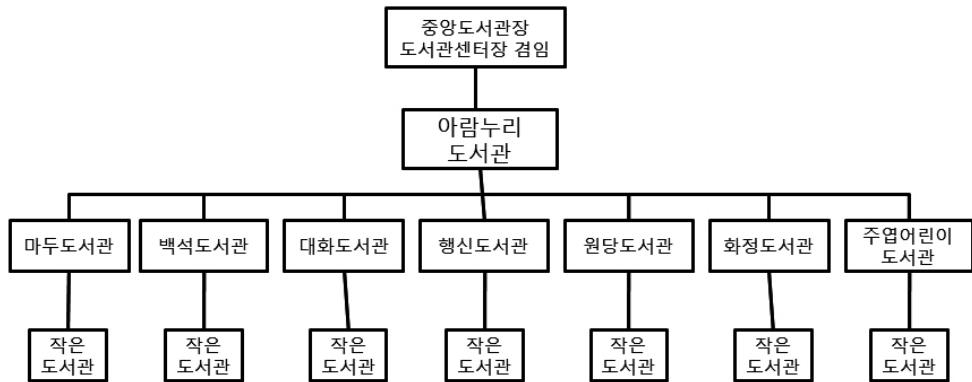
자리 잡고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눈에도 잘 뛴다. 이들 4개 도서관 외에 고양시의 나머지 8개 도서관 모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고양시의 12개 모든 도서관의 입지가 대체로 좋은 이유는 아마도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좋은 입지가 미리 잘 선정되었고, 또한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새롭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입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서관의 입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하면 대부분의 도서관들¹⁹⁾이 공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반드시 공원에 도서관 부지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다면 도서관을 지하철 근처나 시내의 상업지역에 건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²⁰⁾

넷째, 도서관 규모의 문제. I 신도시 계획에 의해 건립된 4개 도서관의 평균 연면적은 4,044 m²로 상당히 크다. 고양시 전체 도서관의 평균 연면적 2,985 m²보다도 크고,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의 평균 연면적인 2,551 m²보다도 1,500 m² 이상 크다.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에서 중요한 것은 도서관의 크기가 아니라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이다. 그러나 작은 도서관처럼 정규직 사서도 없고 지나치게 작은 도서관은 접근성이 좋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결론적으로 대형 도서관을 건립하기 보다는 중소형 도서관을 많이 건립하는 것이 부지 확보나 접근성면에서 유리하다. 위에서도 밝힌 것처럼 현재 I 신도시

18) 고양시에서는 중앙도서관이 아닌 '본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19) 고양시의 12개 도서관 중에서 10개가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20) Hage, Christine Lind. 2004. *The Public Library Start-Up Guide*.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95-96.



〈그림 3〉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고양시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조직도(안)²¹⁾

지역에는 우리나라 전체 현황과 비교해서 도서관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애초에 I 신도시에 현재와 같은 규모의 도서관이 아닌 더(우리나라 평균 규모의)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했다면 더 많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섯째, 도서관 운영 조직 체계의 문제점. I 신도시에 건립된 4개 도서관을 포함하여 고양시의 12개 도서관은 ‘도서관센터’라는 사업소 조직이 되었다. 그런데 한 지자체 내에서 도서관운영 및 시설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은 사서직 관장, 즉 중앙도서관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는 사서 출신이 아닌 4급 행정직 서기관이 도서관센터장 직을 맡고 있고, 이 센터장 밑에 시설관리과와(도서관) 운영과가 있고, 이 운영과 밑에 비로소 중앙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 체계를 〈그림 3〉과 같은 모형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즉, 고양시의 모든 도서관의 운영과 시설관리를 사서출신 중앙도서관장이 총괄한다. 그리고 이 사서출신 중앙도서관장이 고양시 도서관

센터장을 겸임한다. 따라서 나머지 모든 분관은 중앙도서관 밑에 놓이게 되고, 이들 분관의 운영 및 시설관리를 포함하여 모든 도서관 관련 업무를 중앙도서관장이 총괄하는 형태로 조직을 운영한다.

6. 맺음말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및 문화·예술시대를 맞이하여 공공도서관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중앙 및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은 부족한 도서관을 확충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였고, 실제로 도서관 수를 늘리는 데 크게 여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I 신도시의 경우도 그 당시로써는 획기적인 수준의 도서관 건립 계획이 수립되었고, 신도시 계

21) 지면의 제한으로 전체 조직도가 아닌 조직도의 일부만 표시함.

획에 의해 4개 도서관이 건립 되었다. 그러나 I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에서의 성공적인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 곳에 도서관을 건립할 때는 40~50년 후까지를 예측하고 대비하여 충분한 수의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둔다. 왜냐하면 신도시의 경우 도시 계획에 따라서 모든 시설들을 배치하게 되면 20~30년 후부터는 도시 성장으로 인해 새롭게 시설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I 신도시는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가 갖는 장점으로 인해 그 당시로써는 획기적인 수준의 도서관 인프라 확충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나라 평균 수준과 비교해서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신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2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도서관 인프라 수준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 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신도시에 대규모 도서관이 아닌 중·소규모 도서관을 많이 건립하도록 한다. 신도시 혹은 기성도시에서 도서관을 많이 건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건축비가 많이 들지 않고 부지 확보가 용이한 중·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I 신도시가 계획초기에 많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2010년 현재의 우리나라 평균 도서관 규모보다 훨씬 크게 건립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고양시가 운영하고 있는 형태의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작은도서관에는 정규직 사서가 없고 그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의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 신도시에서 이상적인 도서관의 크기는 인구 규모에 따라서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수행 할 중대형($5,000\text{m}^2$ 이상²²⁾) 도서관을 하나 건립하고 나머지는 소규모($500\sim 1,000\text{m}^2$ ²³⁾)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셋째, 신도시의 다른 주요 공공시설과 같이 공공도서관도 주민들의 신도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추어 지체 없이 건립하도록 한다. I 신도시의 4개 도서관이 길게는 주민 첫 입주 후 16년 가까이 지체되었던 이유는 신도시 계획에 도서관 건립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니 해당 지자체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도서관 건립을 미루게 되고, 결국 이러한 피해는 신도시 주민들이 입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도시 건설 계획에 개별 도서관의 건립 시기를 명시하여 주민들에게 공지하고, 궁극적으로 해당 지자체가 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

22) 한 지자체의 중앙도서관은 그 지역 전체 주민을 서비스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데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는 도서관의 봉사대상 인구가 50만 명 이상일 경우 그 도서관의 면적은 $4,950\text{m}^2$ 이상 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1기 신도시 다섯 곳 중 네 곳의 인구가 60만 명이 넘는다. 따라서 새로 건립되는 신도시의 중앙도서관은 20~30년 후의 인구 증가를 대비하여 $5,000\text{m}^2$ 이상의 면적을 갖춘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23) 분관의 편리한 도서관 접근성(성인이 걸어서 1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 1km)을 고려할 때 분관의 잡재 서비스 대상 인구는 대략 2~5만 명이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는 도서관의 봉사 대상 인구가 2만 명 이상 5만 명 미만일 경우 그 도서관의 면적은 660m^2 이상 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는 여지를 남겨둔다.

넷째, 도서관의 입지를 다양화 한다. 도서관의 입지는 주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고려하여 최선의 부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I 신도시처럼 도서관 입지를 공원으로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다면 상업시설 혹은 공공기관,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 상가 건물에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하거나, 통폐합 등의 이유로 비게 된 동사무소 건물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거나, 학교부지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좀 더 융통성 있는 입지 선정이 가능하다.

다섯째, 도서관 부지의 무상양여를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한다. 현재 신도시 건설에서 공공도서관 건립 부지는 해당 지자체에게 무상양여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보니 해당 지자체는 한꺼번에 여러 필지의 도서관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지자체는 신도시 건설 사업 시행사가 확보한 도서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이 부지가 다른 용도로 대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상에서 제안한 다섯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관련 전문단체나 기구, 예를 들면 도서관협회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겠다. 즉, 이들 단체나 기구는 정부에서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 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택지 개발계획, 도시설계 용역착수 및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자문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I 신도시 건설과정에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밝혀내

고, 이 결과를 새로운 신도시에 적용하여 이상적인 도서관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I 신도시가 속한 고양시에 적용한다면, 이 도시의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고양시 도서관의 발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고양시는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2013년까지 19개의 도서관을 건립·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12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7개관을 추가로 건립해야 한다. 도서관을 더 건립하기 위해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에 건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기존 주택 단지에서 수월하게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500\text{m}^2 \sim 1,000\text{m}^2$ 정도의 소규모 도서관을 많이 건립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입지도 공원 내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상업시설과 공공시설 내도 고려해 본다. 또한 현재 도서관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린이도서관을 3개나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과 성인들의 도서관 이용의 불편함을 초래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일반 공공도서관으로 전환한다.

둘째, 고양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의 조직체계를 변화시킨다. 즉, 현재 4급 행정직 도서관센터장이 중심이 되어 도서관 운영과 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서 출신 4급 중앙도서관장이 중심이 되는 조직체계로 바꾼다. 따라서 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 센터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중앙도서관 밑에 분관이 있고, 분관 밑에 정규직 사서가 배치된 작은도서관이 자리 잡는 형태로 조직체계를 만든다.

현재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

는 신도시 건설, 지역재개발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도서관계가 깊은 관심을 보여 많은 공공도서관이 건립되도록

한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부족한 공공도서관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참 고 문 헌

- [1] 고양시 도서관센터. 도서관소개. “연혁 및 조직.” [online]. [cited 2011.7.11].
〈<http://www.goyanglib.or.kr/www3/intro/about/main2.htm>〉.
- [2] 고양시. 조직안내. [online]. [cited 2011.7.13]. <http://www.goyang.go.kr/>.
- [3] 권홍택, 김진일. 1986. 公共圖書館 分館建築의 適正規模 計劃에 關한 研究. 『大韓建築學會發表論文集』, 6(2): 107-110.
- [4] 김영석. 2010a. 신도시 건설과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381-403.
- [5] 김영석. 2010b. 경기도 B신도시 건설과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3): 249-267.
- [6] 도서관법. 일부개정 2011.4.5 법률 제10558호.
- [7]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1.24 대통령령 제22625호.
- [8]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2009. 『도서관법령집』.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 [9]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 2011. e-나라지표. “공공도서관현황.” [online]. [cited 2011.7.10].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639&bbs=INDX_001〉.
- [10] 성남시 중앙도서관. 이용안내. “위치 및 교통.” [online]. [cited 2011.7.13].
〈http://ct.snlb.net/snct/01_intro/12_use9.asp〉.
- [11] 정석. 1998. 살면서 느끼는 일산 신도시의 보행환경. 『경기21세기』, 19: 8-19.
- [12] 주정민, 서준교, 이효원. 2005. 『문화도시의 도시재생과 문화콘텐츠: 글래스고, 빌바오, 도크랜드』.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 [13] 하성규, 김재익. 2008. 『현대 도시관리론: 이론과 현실』. 대구: 협성출판사.
- [14] 한국도서관협회. 2010. 『2010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15]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편람 편찬위원회. 2009. 『도서관편람』.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16] 한국토지개발공사. 1990. 『일산신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 서울: 한국토지개발공사.
- [17] 한국토지공사. 1997. 『B신도시개발사』. 서울: 한국토지공사.
- [18] 한국토지공사. 1997. 『I 신도시개발사』. 서울: 한국토지공사.

- [19] 한국토지공사. 2000. 『주민과 함께하는 토공의 공공건축물』. 서울: 한국토지공사.
- [20] Hage, Christine Lind. 2004. *The Public Library Start-Up Guide*.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pp.95-96.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Goyang Information Documents Business Office. Doseogwan Sogae. "Yeonhyeok mit Jojk." [online]. [cited 2011.7.11]. <<http://www.goyanglib.or.kr/www3/intro/about/main2.htm>>.
- [2] Goyangsi. Jojk Annae. [online]. [cited 2011.7.13]. <<http://www.goyang.go.kr/>>.
- [3] Kwon, Hong Tack, & Kim, Jin Il. 1986. "A study on the optimum size planning of the branch public library building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6(2): 107-110.
- [4] Kim, Young-Seok. 2010a.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new towns and the establishment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2): 381-403.
- [5] Kim, Young-Seok. 2010b.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B new town in Gyeonggi province and the establishment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3): 249-267.
- [6] *Library Act*. No.10558.
- [7] *Enforcement Ordinance of Library Act*. No.22625.
- [8] Planning Group for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2009. *Doseogwan Beopryeongjib*. Seoul: Planning Group for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 [9]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Department of Library Policy. 2011. E-National Indicators. "Gonggong Doseogwan Hyeonhwang." [online]. [cited 2011.7.10].
- [10] Seongnam Central Public Library. Information. "Location & Transport." [online]. [cited 2011.7.13]. <http://ct.snlb.net/snct/01_intro/12_use9.asp>.
- [11] Jeong, Seok. 1998. "Salmyeonseo neukkineun Ilsan sindosui bohaeng hwangyeong." *Gyeonggi 21 Segi*, 19: 8-19.
- [12] Ju, Jeong Min, Seo, Jun Gyo, & Lee, Hyo Won. 2005. *Munhwa Dosui Dosi Jaesaenggwa Munhwa Contents: Glasgow, Bilbao, Docklands*.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ess.
- [13] Ha, Seong Gyu, & Kim, Jae Ik. 2008. *Contemporary Urban Management: Theory and Practice*. Daegu: Hyungseul.
- [14]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0. *2010 Korea Library Year Book*.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15] Editorial Committee on Library Handbook. 2009. *Library Handbook*.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16] Korea Land Corporation. 1990. *Ilsan Sindosi Gaebal Saeop Gibon Gyehoek*. Seoul: Korea Land Corporation.
- [17] Korea Land Corporation. 1997. *B Sindosi Gaebalsa*. Seoul: Korea Land Corporation.
- [18] Korea Land Corporation. 1997. *I Sindosi Gaebalsa*. Seoul: Korea Land Corporation.
- [19] Korea Land Corporation. 2000. *Jumingwa Hamkke Haneun Togongui Gonggong Geonchukmul*. Seoul: Korea Land Corporation.